

## 바티스카프(Bathyscaphe)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합니다.

빈티지 피프티패덤즈(Fifty Fathoms)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피프티패덤즈 바티스카프(Fifty Fathoms Bathyscaphe)는 2013년에 처음 소개되었다. 그 이후 다양한 상품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컬렉션을 확대한 바티스카프는 올해 38mm 사이즈의 딥블루 컬러로 그 영역을 더 넓히게 되었다.

피프티패덤즈 바티스카프의 새로운 쓰리-핸즈 모델은 심해를 연상시키는 블랑팡만의 독특한 딥블루 컬러의 38mm 사이즈로 그 명성을 이어간다. 이 새로운 모델의 다양한 특징적 요소들은 역사 속 피프티패덤즈 에디션들을 생각나게 한다. 완벽한 피니싱을 거친 스틸 소재의 베젤은 블루 세라믹으로 채워졌으며, 인덱스는 변형에 대한 내성 및 장기적 안정성으로 잘 알려진 리퀴드메탈(Liquidmetal®)로 표시되었다.

블랑팡의 다이버워치인 바티스카프는 1950년대 후반에 최초로 탄생하였으며, 처음에는 남성용 모델을 선보이다가 이후에 여성용 모델까지 선보인바 있다. 2013년 피프티패덤즈 컬렉션의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선보였던 바티스카프는 50년대 당시의 디자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 전반적인 디자인에서는 과거 모델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며, 핸즈 또한 빈티지 모델에서 차용되었다. 모든 다이버 워치가 그러하듯, 각각의 모델은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단방향 회전 베젤이 장착되어 있다. 오리지널 모델의 디자인에 충실하기 위하여 형광물질의 도트 인덱스가 표시되어 있는 베젤은 분침과 함께 다이버들이 다이빙 시작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잠수를 하는 동안 초침은 다이버들에게 훌륭한 지표가 되어준다. 새로운 피프티패덤즈 바티스카프는 기타 다른 피프티패덤즈 모델과 같이 30 bar, 약 300m의 방수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칼리버 1150이 탑재되어 있다. 이 무브먼트는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의 케이스백을 통해 볼 수 있으며, NAC 코팅이 된 순금 소재의 진동추에는 블랑팡 로고가 인그레이빙 되어 있다. 무브먼트의 밸런스 스프링은 시계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온 부품으로 잘 알려진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밸런스 스프링의 완벽한 기하학적인 구조는 시계의 정확성과 정밀함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